

요 약

- ▶ 일본의 버블붕괴와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기 침체는 그 원인과 상황에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건설업 상황이나 건설업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버블붕괴 후 일본 건설업체가 당면했던 문제점과 많은 유사성을 띤.
- ▶ 일본 제네콘들의 경우 경영악화에 따라 간접비 절감이나 재무구조 개선과 더불어 내부 생산시스템의 개혁이 동반된 반면,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의 대부분은 전자의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임.
 - 진정한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비절감을 넘어선 생산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적이므로 우리 업체들도 이번 기회를 생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고원가 구조에서 탈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.
- ▶ 더욱이 일본의 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투자의 확대가 한동안 건설업계를 유지시킬 수 있겠지만, 최근의 재정 악화를 고려할 때 조만간 한계에 도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가 요망됨.
 - 건설업체들은 공공투자 감소 후에 당면할 경영환경에 대해 민간경기가 회복되는 경우와 민간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공공투자 감소를 맞는 경우 등에 대한 시나리오 경영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- ▶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성장을 위해 미래의 수급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각 기업별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을 강화해 나가느냐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것임.
 - 일본 대형 제네콘들의 경우 ① 통합력을 통한 시장 확대, ② 버블기에 축적된 엔지니어링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확대, ③ 이 업종 및 타 기업과의 융합을 통한 사업분야 확대, ④ 관련 다각화를 통한 신사업 개발 등을 통해 자사의 미래 사업 분야를 구축하고자 함.
- ▶ 정부는 공공투자를 통한 경기부양뿐 아니라 현재 대주단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업계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임.